해남군 "올 김장 책임집니다" 명품해남배추 수확 개시

해남미소 쇼핑몰 통해 절임배추 사전예약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 가을배추 수확이 시작됐다.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태풍의 여파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가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올해 해남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3천71ha, 겨울배추 1천711ha로 지난해에 비해 가을배추 재배는 늘고, 겨울배추는 줄어들었다.

현재 수확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절임배추로 가공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배추속이 꽉 차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영양가가 풍부하다.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지지 않고,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으로 명품 배추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생배추 외에도 절임배추 가공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생산량의 10%가량이 절임배추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일교차가 커지지면서 배추 특유의 단맛이 강해지고, 속이 단단해 지는 만큼 일반 가정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 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www.hnmiso.com)에서는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질 좋은 절임배추를 원하는 날짜에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3일부터는 해남미소를 통해 김장재료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옥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 가을배추 수확이 시작됐다.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태풍의 여파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가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해남군 제공

보성군 웅치면복지기동대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

보성군 웅치면은 10월 중순부터 중산1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해 이불 빨래 같은 큰 빨래, 운동화, 겨울점퍼 드라이크리닝을 수거부터 세탁 후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15개 마을을 순회하며,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웅치면은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가 취약 계층들이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탁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무거운 이불을 빨래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있었는데 집까지 와서 세탁물을 가져다가 세탁과 건조까지 해주니 너무 편하다."며 큰 만족도를 보였다.

이형춘 웅치면장은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민의 행복한 잠자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신 복지기동대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마을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종수 기자

완도군,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일석삼조'

연안여객선터미널 도로변·농공단지 사거리 2개소

완도군에서 추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가로 경관 개선, 주민 쉼터 제공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청정바다수도에 맞는 도심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관계 기관에 해당 사업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해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도로변과 농공단지 사거리 등 2개소에 숲을 조성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은 24시간 항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 및 화물차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이용 차량의 경우 연간 300만 대에 육박하고 특히 화물차 비중이 높다.

화물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등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해륙풍과 편서풍 등으로 인근 주거 지역에 유입될 위험이 있어 미세먼지 차단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지역 난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겨울철 동해에 강한 동청목을 식재해 약 1km에 달하는 숲을 조성했다.

군은 숲이 주민 산책 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층부에는 홍가시나무와 황금사철을 심었다.

농공단지 사거리의 숲은 연안여객선터미널 숲과 달리 공원 형태로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형 나무 위주로 식재를 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47그루가 모이면 경유차 1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 1.68kg을 흡수할 수 있으며, 숲 조성 시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고흥,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국비 확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녹동항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클린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고 난립된 시설을 개선해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3~2025년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녹동항에 △어민복지를 위한 어구보관창고 △근로자 쉼터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어민공동작업장 그늘막 설치 등과 녹동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장실 재정비 △레인보우 광장 조성 △오션워크 △드림스카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어촌관광 활성화에 따른 주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녹동항을 고흥군의 명품 어항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진도군, 반부패 청렴문화 캠페인 개최

진도군이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김희수 진도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이 최근 진도군청사 1층 로비에서 청렴떡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롯 반부패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실천의식 강화를 위해 열렸다.

진도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과 청렴방송,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운영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현일 기자

장흥,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마음 비움과 채움' 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오전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우울증 예방교육, 아로마 두피케어, 스트레스 검사, 한약 족욕 체험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아기에게 들려주는 시낭송, 원예식물을 활용한 식물 심기 프로그램으로 우울감 사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전했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센터(061-864-0199)로 문의하면 된다. /백두연 기자